

큰 스님 수행한담

생활속의 수행이죠



◇ 1959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후 기념촬영했다. (원안 대정스님·앞 줄 중앙 동산스님)

가 다 정리할테니 너는 철두철미하게 도를 닦아 큰 뜻을 이루도록 하라"고 하시던 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 전북 금산사로 출가해서 지리산일대 사찰에서 수행하다 19세에 봉서사에서 마곡스님을 시봉하시던 보안스님께 사미계를 받았지요.

6·25 전쟁이 한창일때 스님께서 "부산 범어사 동산스님께 가서 공부하라" 하셨습니다.

나. 그곳은 전량이 좋아 멀리 바다도 보이고 산아래가 환히 굽어보이는 곳인데 주변의 나무로 대충 일기살기 지어서 토굴생활을 시작했지요. 음력 10월 말경에 들어갔어요. 눈이 오기 시작하면 사나흘 계속해서 쏟아지는데 사람 허리까지 차오르고 가만두면 토막이 파묻힐 지경이었습니. 산이 깊고 한겨울이라 다른 동물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매일 토막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사라지곤

"토굴서 살다보니 풀·돌 하나도 소중 나와 자연 경계 없어지니 조화 당연 어찌 서로 미워하고 해 끼치겠는가"

이런 스님이 틀림없이 내가 죽었을거라 생각하고 합한 산길을 올라와서는 날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가 살아있는데도 화색이 도는 것을 보고 환골탈태했다고 하면서 반가워하더라구요. 그리고는 산아래에 금강산 마하연토굴에서 37년 정진하신 스님이 계시니 같이 친견하자고 하더군요. 그길로 산을 내려와 그 스님께 갔습니.

선지식을 만나는 인연은 수행자들에게는 복입니다. 나름대로는 공부를 접점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 스님은 "빈도(貧道)인 자신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으나 지금의 수행정진하는 마음이 변치않고 정진한다면 대도를 이룰것이다"며 격려해 주시더군요.

그 이후로 이곳 저곳을 운수행각을 하

는 것을 저절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이더라구요. 옛 조사스님 말씀대로 깨친 경지에서 보면 나와 자연의 경계도 없으니 조화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닌 같은 근본을 가졌는데 어찌 서로 미워하고 해를 끼치겠습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어려운 자신의 성품을 확활하게 알려는 노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불자라면 부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으뜸입니다. 믿을 그자체를 강조하는 소극적인 신봉자세에서는 부족합니다. 믿는 그대로 생활해야 하지요. 그래야 부처님의 참된 법이 살아서 커다란 생명의 참맛을 볼 수 있습니다. 실천을 통해 부처님 말씀의 요체를 알고 이것을 이웃과 친자에게 전해야 하지요. 말 그대로 생활불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불도는 수행을 통해 이뤄집니다. 그래서 스님을 성직자라고하기보다는 수행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행자가 입고 있는 가사와 장삼은 바로 부처님의 고행과 인내를 담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한 것입니다. 바로 인욕의 상징이 가사인것이지요. 부처님은 모진 고행과 인내를 통해 법을 깨치셨고 그로인해 만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출세간을 막론하고 부처님 제자는 인욕을 수행의 큰 수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도 심부름 내기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백장스님이 "1일 부작이면 1일 불식하라"는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일 그자체가 바로 삶의 수단이자 의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행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재가자들도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풍족한 물질로 눈부시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 안하고 사는 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왜 사는지 그 주체를 잃고 사는것이요. 일에 몰두함으로써 생활속의 수행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 토굴생활은 50세까지 지리산에서 했습니다. 대중들이 다 말리고 하는데도 생각이 1일 1식하면서 지냈습니. 인욕과 고행을 실천한 것이지요. 그 이후로 이곳 범어사에서 살고있지만 사물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토굴생활의 습이기도 하지만 내 심부를 내기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백장스님이 "1일 부작이면 1일 불식하라"는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일 그자체가 바로 삶의 수단이자 의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행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재가자들도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풍족한 물질로 눈부시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 안하고 사는 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왜 사는지 그 주체를 잃고 사는것이요. 일에 몰두함으로써 생활속의 수행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자금은 공해가 심하고 물도 많이 오염되어 그만한 맛이 안날겁니다. 모든 먹거리를 직접 키워먹다보니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

다 29세되던 해에 범어사 동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받았습니. 동산스님께서 하신 첫 일성이 "내가 죽어 되었으니 철두철미하게 계를 잡 지켜라"며 "도(道)라는 것은 처음 먹은 마음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니 초발심을 항상 기억하고 수행정진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동산스님을 직접 시봉해야 도리지만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스승삼아 전국의 선방을 다 돌랐습니. 주로 지리산에 토굴을 지어 살았습니. 깨쳐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 예전에는 토굴을 마련하기 위해 산입구에 들어서면 한강산 산내음이 났는데 지금은 오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요즘은 산에 마음대로 잡초차 짓지 못하지만 그때야 임시로 토굴하나 지어 사는데는 별 지장이 없던 시절이었습니. 토굴생활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생활입니다.

자금은 공해가 심하고 물도 많이 오염되어 그만한 맛이 안날겁니다. 모든 먹거리를 직접 키워먹다보니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박순달

4대와 原子

불교는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는 동안 난해한 이론에 빠져 들면서 점차 대중들에게서 멀어져 갔다. 이때 불교의 진정한 정신을 되찾아 대중들에게 친밀한 불교를 일으켜 세우려는 대승불교 운동이 나타났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탑(스투파)을 지키는 재가의 집단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만민구제를 지향하는 대승물(大乘物)의 뜻에서 대승이라 하였다. 대승불교에서는 자리타(自利利他)적인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추구하는데 이에 비하여 각자의 열반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부파를 소승이라고 부른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교가 이 부파에 속한다. 기원전 1세기 경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등의 대승경전이 나타나 기원후 6세기부터 부흥하기 시작해 중국을 거쳐 극동 지역에서 꽃을 피웠다.

불교를 정진한

중도를 표방하게 된다. 옹수는 대지(假有)이다. 이 가유는 인연이 흩어질 때까지는 존재하는 것이니 실재하는 것이니 비공(非有)이다. 그래서 유(有)와 공(空)에 대해 치우치지 않는 유공(有公)의 타당성.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탑(스투파)을 지키는 재가의 집단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만민구제를 지향하는 대승물(大乘物)의 뜻에서 대승이라 하였다. 대승불교에서는 자리타(自利利他)적인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추구하는데 이에 비하여 각자의 열반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부파를 소승이라고 부른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교가 이 부파에 속한다. 기원전 1세기 경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등의 대승경전이 나타나 기원후 6세기부터 부흥하기 시작해 중국을 거쳐 극동 지역에서 꽃을 피웠다.

"일체는 마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대승불교 非有 강조 물질관 발전없어

유비무언을 습득한 세친은 4세기 (구사론(俱舍論))을 저술했다. 이것을 이어 받은 것이 구사종이다. (구사론)은 법을 5위75법으로 나누고 있는데 5위란 법을 5개 범주로 나눈 것으로 색(色)법, 심(心)법, 심소(心所)법, 심불상응행(心不相應行)법, 무위(無爲)법을 뜻한다. 색법은 일체의 물질적 존재로써 11종으로 분류하는데 5근, 5경, 무표색의 11종이다. 5근은 인간의 인식기관으로 6근중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을 뜻한다. 5경은 6경중 안경, 이경, 비경, 설경, 신경을 말한다. 이것은 모두 형상이 있는 것으로 이외에 형상이 없고 의식(意識)이 인식하는 무형의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무표색으로 분류한다. 한편 실일체유(說一切有)에 반대 무아, 무인의 근본교설을 중시하고 실일체공(說一切空)을 주장하는 성실종은 5위84법에서 색법은 5근, 5경, 지수화풍 4대를 포함하여 14종으로 보고 있다. 구사종이 물질을 11종으로 분류하면서 4대를 기본으로 삼는데 비해 성실종은 4대 또한 물질의 분류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승불교는 부파불교 때 발전한 이론을 이어 받아 오면서 물질관에서는 더 이상 변화가 없다. 위에서 본대로 11종, 14종분류가 있기는 하나 원시불교, 부파불교의 물질관을 정리한 것이다. 대승불교는 근본사상이 색의 비유(非有)적인 면을 강조하고 색을 공으로 보아 색의 유위(有爲)의 기초를 마련한다. 공은 없다거나 비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도로서의 공을 의미한다. 모든 존재는 실

제가 아니라 가유(假有)이다. 이 가유는 인연이 흩어질 때까지는 존재하는 것이니 실재하는 것이니 비공(非有)이다. 그래서 유(有)와 공(空)에 대해 치우치지 않는 유공(有公)의 타당성.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탑(스투파)을 지키는 재가의 집단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만민구제를 지향하는 대승물(大乘物)의 뜻에서 대승이라 하였다. 대승불교에서는 자리타(自利利他)적인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추구하는데 이에 비하여 각자의 열반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부파를 소승이라고 부른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교가 이 부파에 속한다. 기원전 1세기 경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등의 대승경전이 나타나 기원후 6세기부터 부흥하기 시작해 중국을 거쳐 극동 지역에서 꽃을 피웠다.

부처님법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으뜸 불자 "출세간 막론하고 인욕수행 수칙삼아야"

1. 4후퇴하는 차량 공무리에 매달려서 범어사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참상은 말로 다 못합니다. 피난중에 사람들은 죽고 차 지붕과 꼬리에 주렁주렁 매달려 이동을 하곤 했으니까요. 김천을 거쳐 왜관까지 고박 사들이 걸렸습니. 낙동강에 와보니 강이 얼어서 배도 안뜨고 더 이상 갈수가 없어 고향 상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들리는 소리에 범어사도 이미 육군사관학교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겠구나 싶어 다시 걸어서 모악산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했는데 두려움은 없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무사히 잘 수행정진하도록 보초를 선것같아요. 생식을 하면서 차오르는 눈을 치우는 일 외에는 두문불출하고 화두를 잡았지요. "내가 뭐고?" 처음부터 화두가 잡히는 것은 아니어서 관세음보살 주력으로 사물을 보내고 나니 음이 소멸되며 저절로 화두가 잡히게 되더군요. 놀라운 일은 화두의 절정에 가면 잡이 깊어 들어도 화두가 역력한 경지가 오는 것입니다. 분명 잠을 자는데도 화두가 선명하게 잡혔었다 그렇입니다.

그때는 정신이 맑은 거울같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화색이 들고 몸이 훑나 나도 참었습니다. 마침내 그곳에서 처음 동산스님을 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화가 장기적인 시일을 요하는 일이라 나는 바로 모악산으로 돌아와 토굴수행을 했습니다. 쌀, 찹쌀, 보리를 가루로 만들고 술과 생콩가루를 쪄겨들고 모악산 정상에서 툇 바로 내려온 곳에 들어가 토막을 지었습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8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포교과)	2년	•주간 30명 •통신 8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포교(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교계절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본교학생38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2월 19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 511-2026-8 광주 삼부서적 : 222-025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부산 영광도서 : 816-9500
대구제일서림 : 424-0801, 대전전경서적 : 252-8558
마산학문당 : 46-2925, 인천 대한서림 : 762-7337
김해 오복당 : 36-2105, 전주 흥지서림 : 88-5311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불교전문 지도자(유발승려)교육생 모집

1. 설립이념

본교육원에서는 현실에 맞는 실천불교, 체험불교, 생활불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선양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지도자(유발승려)교육과정을 개설하오니 불교에 대한 원력을 가지고 전문 종교인으로서 가치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교육기간 : 1년
교육과정 (* 자세한 교육과정 내용은 설명회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불교학	종교학	포교학	불교의식(집전)	복지학	상담심리학	명리학
-----	-----	-----	----------	-----	-------	-----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 원 자 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 방법
지도자과정 30명	불자	입학원서 1통	원서교부 : 97년1월10일 ~ 2월 28일	면접 및 서류전형
일반과정 30명	고등학교 졸업, 30세 이상의 남·녀	본원 소정 원서 1통	접수 : 3월1일 ~ 3월 30일(전형료 15000원)	공·시 기제비 명예퇴직자 우선전형 *

4. 특전

- ▶ 본원 졸업(전문지도자 과정)수계 후 유발승려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본원이 소유한 사찰 및 포교원 원장에 발령 임명함.
- ▶ 본원졸업(일반과정)수계후 법사자격 부여 본원 포교사 임명
- ▶ 성적우수자에 한하여 본원과 자매 결연한 해외 종교 기관에 특별 연수

* 교육과정 설명회 :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 : 본원
대표전화 : (02) 423-1800

우리 불교 마음의 절 부설 : 불교전문 지도자 교육원
불자가정 부처님 모시기 운동본부